

## 삐야파 선생님이 들려주는 태국 이야기

삐야파 선생님은 중국계 태국인입니다. 6년 전 한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태국인을 위한 한국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며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 태국은요

‘타이’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1939년까지는 ‘시암’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타이라고 부릅니다. 태국에서는 불기를 쓰는데, 불기는 서기+543년이죠. 2011년은 불기로 2554년입니다.

태국 국기의 맨 위와 아래에 있는 빨강색은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흘린 피를 뜻하죠. 흰색은 불교를, 파란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국민의 피와 정신적 바탕인 불교를 토대로 국왕을 옹립하고 있는 태국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어요.

태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타이계가 75퍼센트, 중국계 14퍼센트, 기타가 11퍼센트인데, 기타에는 인도계, 말레이계 등이 있죠. 카렌족은 북부 산지에 사는 대표적인 소수민족입니다. 제가 중국계니까 중국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태국에서는 중국계 사람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중국 사람으로, 할아버지 때 태국에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닉쿤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중국에서 태국으로 옮겨온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광둥성에서 배를 타고 오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돈도 없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 태국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불상목걸이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불상목걸이를 자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관음상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성인이 되면 여자보다 남자가 불상목걸이를 많이 합니다. 염주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요. 저는 불상목걸이를 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항상 계십니다. 한국 스님은 채식만 하셔야 하지만 태국에서는 스님이 사람들로부터 봉양 받은 음식은 고기를 포함해서 다 드세요. 스님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또, 여성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 기본예절은요

태국인들은 인사할 때 공손한 표정으로 합장을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을 지나게 되면 몸을 조금 숙여 공손한 태도를 해야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이 방문하거나 만날 때 재스민꽃목걸이를 걸어주고 환영합니다.

태국 사람은 다른 이의 머리를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사이에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해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귀엽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

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은 태국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 행동입니다. 태국인은 머리에 혼이 있으니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또 몸에서 가장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주고받을 때 오른손을 씁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왼손은 불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발로 뭔가를 가리키거나 지시하면 안 되는데 발은 신체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 음식과 옷차림, 주거방식은요

똥양공은 태국에서도 즐겨 먹고, 외국에도 잘 알려진 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똥양공은 한국의 김치찌개처럼 가정에서도 자주 먹는데, 맛은 짬뽕국물하고 좀 비슷해요. 새우와 라임, 레몬 등 다양한 양념을 넣고 끓이는데, 맵고 시고 달고 짠 맛이 다 들어가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잘 먹어요. 팟타이(볶음쌀국수)도 자주 먹는 아주 유명한 음식이죠.

디저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계란으로 만든 '황이팅(golden threads)'을 좋아해요. 포르투갈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계란과 설탕시럽을 섞어 뜨거운 기름에 실뭉치 모양으로 튀긴 거죠.

음식 중에 개고기는 피해야 합니다. 아마 불교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애완으로 많이 키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선회와 같은 날 음식도 잘 먹지 않습니다. 태국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날로 먹기에는 음식이 금방 상해서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회를 먹어보긴 했지만 특별히 맛있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던데요. 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소고기도 잘 먹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옷은 명절에만 입습니다. 한국에서 한복도 그렇잖아요. 명절 때도 뭔가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사람만 입어요. 전통적인 남녀 옷을 '쥬타이'라고 부르는데, 쥬는 옷, 타이는 태국의 뜻입니다. '한복'이 그런 것처럼 '태국옷'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복으로는 서양식 의복을 입어요.

요즘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을 많이 따라 해요. 패션은 거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또 한국 상품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2001년에 방영한 드라마 '가을동화'를 통해 시작된 한류열풍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류를 아주 큰 태국의 현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동화가 유명해진 이유라면, 가을이라는 계절이 태국에는 없는 것이라 그 특별한 분위기를 근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겨울연가도 비슷한 이유로 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마당이 딸린 주택을 좋아하죠. 아이들은 마당이나 길에서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가위바위보 같은 놀이를 하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며 놀아요.



## 태국의 남과 여

태국은 한국보다 더 높은 평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국에서는 여자들이 높은 직위에 진출해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태국총리도 여자입니다. 대개 아들과 딸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데, 중국계 태국인(화교)들은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이 있기도 해요. 게이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패션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제3의 성이라는 레즈비언도 많습니다. 태국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밝힌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좀 다른 문제예요. 가족 중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있으면 썩 즐겁게 여기지는 않아요. 또 태국의 인구 중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죠. 존경받는 직업은 교수, 의사고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여

성들은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해요. 예쁘고 돈도 잘 벌고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엔지니어를 선호합니다.



## 가족

요즘은 핵가족이 보통이기는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족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생활은 엄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혼인하게 되면 남편 성으로 바뀌어요. 요즘은 여성이 혼인 후에도 자기 성을 쓸 수 있어요. 또 태국에서는 이름 앞에 '나이(Mr.)', '낭싸오(Miss)', '낭(Mrs.)'을 붙이는데 '낭'을 붙인다는 것은 결혼하고 남편 성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주로 아들이 모시고 살아요.



##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과 숫자

태국인이 좋아하는 색은 밝은 색입니다. 노란색은 특별하게 왕의 색이죠. 태국에는 각 요일마다 상징하는 색이 있어요. 월요일-노란색, 화요일-분홍색, 수요일-녹색, 목요일-주황색, 금요일-파란색과 하늘색, 토요일-보라색, 일요일-빨간색, 이렇게요. 사람들은 요일 색에 맞춰 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가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싫어하는 색은 검정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빨간색과 주황색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보통 불교에서 3을 좋은 숫자라고 합니다. 9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9가 '발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발음이거든요.



## 한국의 좋은 점, 힘든 점

한국 생활은 다 즐거워요. 음식이 좀 불편한데, 소고기를 잘 안 먹는 태국인 입장에서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국은 특히 교통이 편리해서 좋아요.

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라고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때는 더 배려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것에 따라 매우 달라요.

한국에 태국인 노동자가 5만 명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주로 안산 쪽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 한국에 오는 태국 관광객

태국에는 한류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관광객들은 가을동화의 촬영지인 남이섬에 많이 가요. 최근에 개봉한 태국영화 '헬로 스트레인저(Hello stranger)'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그 때문에 다시 한류가 불고 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주로 돼지갈비, 삼계탕, 불고기를 많이 먹어요. 태국사람들은 불교인이지만 힌두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소고기를 잘 안 먹어요. 또 소고기가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남이섬에 가면 근처 춘천에 가서 춘천닭갈비를 먹기도 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며 얻은 정보와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들을 태국 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려요. 저는 한국인이 빠르고 부지런하고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으니 밖에서 버릴 것이 있을 때는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버려야 한다는 것도 태국인에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라 해 드립니다.